

“우리 가곡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누구에게나 중고등학교 음악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춰 아름다운 가곡들을 불렀던 기억이 있다. ‘성불사의 밤, 그리운 금강산, 그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어른이 되고 나서 가곡을 불러본 경험은 거의 없고, 음악회 등에서 간간히 듣는 게 전부였다. 안타깝게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에게조차도 ‘한국 가곡’은 관심 밖일 경우가 많았다. 한국 가곡을 좋아하는 이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우리들의 보물창고’인 아름다운 노래와 멜로디로 이루어진 우리 가곡을 함께 부르고, 또 배우기 위해 서다.

지역의 한국 가곡 애호가들이 ‘내 마음의 노래 광주 전남지부’(회장 황선옥 아름다운피부과 원장·이하 내마노)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박원자(시인·조봉초 교사), 박진영(피부과 원장), 김광수(이비인후과 원장), 송덕현(고창군청), 이용우(국립광주박물관)씨 등 ‘내마노’ 회원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가곡의 매력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기투합했다.

이들이 뭉치게 된 데는 인터넷 사이트 ‘내마음의 노래’(www.krsong.com)의 역할이 컸다. 지난 1996년 개인 홈페이지에서 출발한 ‘내 마음

‘내 마음의 노래 광주전남지부’ 발족 월 1회 가곡 부르기 ... 22일 첫 행사



한국 가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내마음의 노래’ 광주전남지부가 오는 22일 첫 번째 행사를 갖는다. 사진은 40회 넘게 ‘우리 가곡 부르기’를 열고 있는 마산 지부 행사 모습.

의 노래’는 현재 5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국 가곡 전문 사이트다. 이 사이트를 통해 인연을 맺은 회원들은 광주 지역 회원들이 함께 모여 가곡을 부르고, 배우는 게 어떻게 구성했다.

무엇보다 서울, 통영, 고성, 마산 등 전국 각지에서 자생적으로 오프리인 모임이 만들어지는 데 비해 정착 예정이라고 하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어 아쉬웠던 회원들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내마노’는 매월 넷째주 금요일 ‘광주 전남 우리 가곡 부르기 행사’를 진행 예정이다. 모임에서는 유명 가곡들을 함께 부르고, 매번 새로운 창작 가곡들도 배우게 된다. 또 회원들이 무대에 직접 서서 노래를 부르고, 광주·전남지역 시인·작곡가들의 작품도 많이 소개할 계획이다.

22일 오후 7시 상무지구 클래식 음악 감상실 한울림에서 열리는 첫 번째 ‘광주전남 우리 가곡 부르기’ 행사에서는 회원들이 ‘그리운 금강산’, ‘벚

노래’ 등을 부르며 정덕기(백석대 교수)씨가 곡을 부친 ‘내가 너를 부를 때’를 소프라노 김미옥씨의 지도로 배워본다.

또 서울, 전북 등에서 ‘우리 가곡 부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회원들과 테너 김백호씨의 축하 무대도 준비했다.

회원들의 한국 가곡 사랑은 각별하다. 작사자이기도 한 박원자씨는 ‘하늘빛 너의 향기’ 등 37개의 작품의 가사를 썼으며 이용우씨는 오랫동안 아버지합창단에서 활동하며 늘 한국가곡과 함께 해왔다.

“외국 음악은 멜로디는 좋지만 가사에 동참하기는 어렵죠. 우리 가곡은 아름다운 시에 가락을 넣은 거라 멜로디도 좋지만 글 자체만으로도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고, 가사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다고 할까요. 새로운 노래를 한국 배울 때마다 아름다운 시 한편을 외우게 되는 셈이죠.”

김광수씨와 함께 성악 레슨도 받고 있는 박진영 원장은 “우리 지역에서 가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2일 첫 행사에는 한국 가곡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375-2214, 016-694-45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08 광주비엔날레 작품 첫 공개



광주비엔날레 재단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마이다다 팀의 작품 ‘프로젝터리(Projectory)’를 설치하고 있다.

07 광주비엔날레 08 ‘프로젝터리’ 야구공 피칭머신 출품 115건 중 52개 작품 반입

“2008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은 야구장?”

오는 9월5일 개막하는 제7회 광주비엔날레에 실제 야구장이 들어선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18일 제7회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 작품 반입과 설치에 들어갔다. 재단은 이날 광주본부세관과 함께 최근 반입된 일부 작품을 공개했다. 지난 15일부터 작품이 들어왔지만 이 과정에서 마약 등 다른 물질이 함께 수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 직원들이 참석했다. 재단에 따르면 18일 현재 비엔

날레 출품작 115건 중 52건(45%)이 반입됐다. 재단은 오는 25일까지 모든 작품의 반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단이 공개한 작품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작품은 ‘끼워넣기(Insertions)’ 색션에 출품되는 마이다다(민영순, 알랭 드 सू지 등) 팀이 선보이는 ‘프로젝터리(Projectory)’이다. 실제 야구장에서 쓰는 11m 길이의 피칭머신(pitching machine)을 전시장에 설치해 30초 마다 야구공을 던지기 위해 세관 직원들이 참석했다. 재단에 따르면 18일 현재 비엔

신을 향해 날아오는 공의 궤적을 보고, 충돌로 요동치는 아크릴판의 진동을 느끼게 된다.

또 ‘제한(Position papers)’ 색션의 작가 코소보의 시슬레이 샤파(Sisley Xhafa)가 100달러 지폐 모형을 24㎡ 크기의 양탄자로 제작한 ‘칼린(khaleen)’과 독일의 한스 하케(Hans Haacke)가 대형 실크 천에 바람을 불어 넣어 바닥에서 팔리기에 한 ‘Wide White Flow’도 눈길을 끌었다.

오우이 엔위저 예술 총감독은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열린 36개의 전시회가 모여 새로운 미학을 탄생시킬 것”이라면서 “작가들의 작품이 속속 도착하고 있고, 전시장 준비도 마무리되는 등 개막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희기자 kroh@kwangju.co.kr

‘물빛수채화회’전 ▶21~27일 무등갤러리

물빛수채화회(회장 오경순)가 21~27일 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여섯 번째 단체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미경, 김수정, 김옥순, 김옥희, 김진아, 윤순실, 이선하, 정신희, 조난옥, 최영민 씨 등이 참여해 다양한 색채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오경순 작 ‘빛-11월’

김미경씨는 지구본 위에 올려놓은 생선과 화려하게 빛의 조화를 강조한 ‘몽상’을 선보이고, 윤순실씨는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물결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자연의 합창’을 전시한다.

지난 1998년 창립한 물빛수채화회는 수채화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여성 작가들의 모임이며, 회원들의 창작열을 북돋우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회원전을 열고 있다.

/오광희기자 kroh@kwangju.co.kr

효학회 광주·전남지회 21일 창립기념 학술대회

한국효학회 광주·전남지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광주시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와 함께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1세기 사회와 효 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고령화가 사

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 사회에 있어 효와 효의 가치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김희재 광주대 교수는 ‘예학의 본질로서의 효’를, 최기호 조선대 평생교육원 교수는 ‘전통문화와 효 사상’을, 김시우 성산호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새롭게 조명되는 성경적 효 사상’을 주제로 각각 발표 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대금 연주단 ‘여울림’ 공연 21일 빛고을국악전수관

대금 연주단 ‘여울림’(단장 채광자·사진) 정기연주회가 21일 오후 7시 광주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대술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대금 이중주곡 ‘바람’, 대금합주곡 ‘경풍년’, ‘원장현류 대금산조’, ‘서용석류



대금산조’ 등을 들려준다. 또 영화 ‘올드보이’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천년화의 삼인곡’을 대금연주로 듣는 색다른 시간도 마련된다. 정성수·김태희·주재홍·김희동·김희재·배현주·노을·김주희씨 등 20여 명의 단원들이 참여한다. 문의 011-632-3624. /김미은기자 mekim@

‘글로벌 인스티튜트’ 전남대서 강의 시작

제7회 광주비엔날레 이벤트 가운데 하나인 ‘글로벌 인스티튜트(Global Institute)’가 광주를 찾았다.

세계미술품의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는 이번 글로벌 인스티튜트는 지난 11~16일 서울에서 강의 일정(세션 1)을 마친 데 이어 18일 전남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

했다. 글로벌 인스티튜트는 세션 1(11~23일), 2로 나뉘어 열린다.

이날 강의에는 17개국 47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했으며 전남대 장석원 교수와 천득영 교수가 각각 ‘광주비엔날레의 지역성과 역사’, ‘광주의 문화중심도시 프로그램’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또 이번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인 임인애,

홍은영씨가 자신들의 작품인 ‘밤, 꽃, 양’을 가지고 학생들과 토론시간을 가졌다.

한편 세션2는 9월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열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 학생들과 영국왕립미술학교 학생들이 합류한다.

/오광희기자 kroh@kwangju.co.kr

mega box www.megabox.co.kr 1관 다크나이트 (154) 2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4) 3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4) 4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54) 5관 다크나이트 (154) 6관 아기와나 (124) 7관 당신이 잠든사이(154)/엑스파일(154) 8관 미이라3-황제의무덤 (124)/월-드(전제) 9관 다짜마와 리 (124)	엔터 시네마 www.entercinema.co.kr 1관 월-드(전제)/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4) 2관 다짜마와 리 (124) 3관 엑스 파일-나는밀고싶다 (154) 4관 당신이 잠든사이 (154) 5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4) 6관 님은먼곳에(154)/눈에는눈이에는눈(154) 7관 미이라3- 황제의무덤 (124)	콜롬버스 시네마 www.joybox.com/1588-7941 1관 엑스 파일-나는밀고싶다 (154) 2관 님은먼곳에(154)/당신이 잠든사이(154) 3관 아기와나 (124) 4관 다크나이트 (154) 5관 월-드(전제)/월-드(전제)/미이라3(124) 6관 다짜마와 리 (124) 7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4) 8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54) 9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4) 10관 미이라3- 황제의무덤 (124)	씨너스 전대 www.cinusa.co.kr/1544-0070 1관 고사-피의 중간고사 (154) 2관 엑스 파일-나는밀고싶다 (154) 3관 다짜마와 리 (124) 4관 눈에는눈이에는눈(154)/미이라3(124) 5관 월-드(전제)/당신이잠든사이(154) 6관 아기와나 (124) 7관 다크나이트 (154)	하미 시네마 www.hamycinema.com/1586-9120 1관 월-드(전제)/님은 먼곳에 (154) 2관 다크나이트 (154) 3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54) 4관 다짜마와 리 (124) 5관 다크나이트(154)/미이라3(124) 6관 아기와나 (124)/눈 놀 놀(154) 7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4) 8관 엑스 파일-나는밀고싶다 (154) 9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4) 10관 미이라3- 황제의무덤 (124)	제 일 시네마 www.zimusicinema.com/www.jedcinema.co.kr 1관 고사-피의 중간고사 (154) 2관 다짜마와 리 (124) 3관 미이라3- 황제의무덤 (124) 4관 다크나이트 (154) 5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4) 6관 눈에는 눈 이에는 이(154)/님은 먼곳에(154)
--	---	---	--	---	--